



제국과 천국

브라이언 월쉬 · 실비아 키이즈마트 지음
홍병룡 옮김 HVP 펴냄

브라이언 월쉬와 실비아 키이즈마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16세기 전에 구분했던 두 나라에 새로운 이름 두 나라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 바로 '제국과 천국!' 천국(the kingdom of Heaven)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제국(the empire)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정치·사회경제·군사·생태학적 삶의 총체다.

'신국론'의 맥을 잇다

이 책은 『신국론(De civitate Dei)의 맥을 잇는 책이다. 5세기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civitas Dei)와 땅의 나라(civitas terrena)' 간 대립으로 보았다. 두 나라는 분리된 실재지만 세상 끝 날까지 현실의 국가 안에서 함께 공존한다. 하지만 서로 명백히 다른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 땅의 나라는 하나님을 명시하기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건설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원동력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amor Dei)이고 땅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자기에(amor sui)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나라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점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는 둘 중 하나이지 제 삼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둘은 역사 속에서 공존하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야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이 책의 공저자 브라이언 월쉬와 실비아 키이즈마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16세기 전에 구분했던 두 나라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 바로 '제국과 천국!' 제국(the empire)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정치적·사회경제적·군사적·생태학적 삶의 총체다. 천국(the kingdom of Heaven)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골로새서에 표현된 바에 따르면, 천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나라(1:16). 또한 예수님에 의해,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3:10) 사람들의 나라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통치되기에 평화와 겸손, 섬김이 넘친다. 그러나 제국은 무한한 진보와 확장의 신화로 무장하여,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국은 1세기의 로마이거나 20세기 말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미국일 수도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의 현실일 수도 있고, 상당수 사람들의 생애와 삶을 지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일 수도 있다. 두 나라의 존재방식과 성격은 처음부터 대립된다. 때문에 두 나라를 모두 만족시키려는 크리스천의 시도는 실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들의 생각이다.

'골로새서'의 탈국적 해석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1982년 캐나다 맥길대학의 박사과정 학생 브라이언과 당시 영국의 젊은 성경학자 톰 라이트와의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톰은 티베일 주석 시리즈 가운데 골로새서를 쓰고 있었는데, 브라이언에게 자기 글을 읽고 의견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하여 골로새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톰의 원고는 일반적인 주석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사성도 띠고 있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골로새서의 말씀이 오늘날 현실에 어떻게 상응하는지를 묻으며 더 나아가길 원했다. 가령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현재 어떤 세력에 해당하는가?'처럼 말이다. 한편 실비아라는 여성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톰의 지도 아래, 옥스퍼드대학에서 이 주제를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얻었다.

1993년 브라이언과 실비아는 결혼을 하고, 토론토대와 기독교학문연구소(CCS)에서 가르치며 리더며(Re-deemer)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들의 성경해석을 가정과 공동체 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왔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과 짐을 나누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안식을 제공했다. 이 책은 그런 성경해석과 실천의 산물이다. 브라이언과 실비아는 이러한 성경해석을 '탈국적'이라고 부른다. 탈국(tergum)이란 A.D. 1~3세기 에 이람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던 팔레스틴과 바빌론 유대인들의 구약성경이다. 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이람어로 번역하고 본문 사이사이에 자세한 해설을 덧붙였다. 이 해설은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매우 시사적이고 구체적이었다. 브라이언과 실비아는 이 탈국 번역의 전통을 되살려서 골로새서에 대한 주석을 시도한다.





“세계화된 경제와 사이버네틱 혁명이 결정적으로 입증하듯이, 현세는 정보테크놀로지를 등에 업은 경제적 결정권이 세계의 주권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예수물 우주의 주권으로 고백당하고 그에 걸맞게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클로세서의 제국과 천국

브라이언과 실비아는 플로세서의 밑줄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다. “그리스도가 진정 만물의 창조주요 구속자라면, 그처럼 놀랍도록 포괄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생태학적·정치경제적 삶과 관련된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13)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플로세서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다. 알다시피 플로세서가 쓰인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다. 로마는 군사력과 기술을 통해 세계를 정복했고, 황제를 평화와 번영의 수호자로 신(Deus)으로 신봉했다. 그러나 로마 번영의 그늘에는 파괴된 도시가 있었고, 노예로 전락한 주민들과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는 소작농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 생겨난 플로세 교회는 새로운 세계관과 삶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사회 지위에 상관없이, 서로를 돌보며 가진 것

을 나누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병자들이 치유되기도 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가,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하며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복수하지 않고 용서를 베풀었다. 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로마 제국의 분위기와는 다른 사랑과 화합이 넘쳐났다.

오늘날도 천국이 가능할까?

이 책의 후반에 가면 브라이언과 실비아의 질문은 더 현실적이 된다. “세계화된 경제와 사이버네틱 혁명이 결정적으로 입증하듯이, 현재는 정보테크놀로지를 등에 업은 경제적 결정권이 세계의 주권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예수물 우주의 주권으로 고백하고 그에 걸맞게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164) 오늘날 제국은 군사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 기술지상

주의, 경제주의 같은 이상들을 통해 모든 사람을 지배한다. 이 제국의 퍼사드(facade)*는 부와 권력과 명성, 섹스와 신나는 오락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뒷골목은 서로를 잡아먹고 약탈하는 문화에 의해 살해당하고 훼손된 시체로 가득하다. 과연 교회는 제국의 지배를 박차고 나와 천국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제국의 탐욕에 희생된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인다. 교회도 군사력, 인종과 민족, 기술과 경제력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도 세계화의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세계화의 긍정



최백석 박사대 기독교철학 교수이며 한국기독교회 목사이자,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및 Th.M. Cand.,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 서 Paul Ricoeur의 해석학 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기독교교리실천운동 운영위원 및 이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공동회 운영위원이며 세계관운동 교육과정개발위원장과 CUP 출판위원, 한국기독교철학인협회 이론편역위원장, 한국기독교철학회·단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퍼사드(facade) (건물의 정면 (실제와는 다른) 표면, 허울)